

50. 북방왕의 행사를 예언함(2)

2012. 12. 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북방왕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승리하지만, 아직은 북방왕이 정한 기한 안에는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1:36]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1. 지난 시간에 나는 말씀에 따르면 북방 왕으로 표상된 교권로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영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길을 어렵게 만들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악한 종교라는 인상을 깊이 각인 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북방 왕은 어떻게 된다고 예언되었습니까?

답: 예, 그뿐이 아니지요. 오늘날 세상에 북방 왕의 존재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세상에 군림하고 있고, 그렇게 하여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봐야지요. 다음 예언의 말씀도 아직 북방 왕이 활동하는 상태를 예언하고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단11:33~37입니다.

[단11:33~35]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34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귀홀로 그들과 친할 것이며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이 말씀은 32절 하반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입니다. 교권의 전성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바른 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왈덴스들은(지난 시간에 누군지 말했지요.) 장사꾼 노릇을 하면서 집집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리쳤습니다. 그들은 로마교가 정통이라는 주장을 거부하였고, 교회는 결코 잘못할 수 없다는 이론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옥설, 화체설(성만찬 떡이 신부의 축사로 실제로 예수의 살로 화한다는 설)을 부인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반대했으며,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제칠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무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이상 Albelt H. Newman의 A Manual of Church History, 557과, Blair의 History of the Waldenses 1권, 220 참고)

또한 영국의 위클리프의 제자들인 롤라드는 둘 씩 짝을 지어 각 지방을 순방하면서, 위클리프가 최초로 번역한 영어 성경(1382년 번역)을 가지고 백성들을 진리대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무류설과 고해 성사를 반대하고 연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순례와 성자와 성 유물 숭배를 반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렌위크 저, 오만규 역, 세계 기독교 교회사, 보이서사, 153 참고) 이러한 가르침은 보헤미아 프라하 대학교 총장인 얀 후쓰(John Huss, 1360~1415)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동료 제롬(Jerome, 1365~1416) 교수와 함께 이 가르침을 보헤미아에서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33절은 이러한 사실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진리를 따라 산 사람들과 개혁자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였습니다. 여러 날은 교권의 전성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 그런데, 목사님, 34절 내용은 읽기에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쇠패할 때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이며, 많은 사람이 귀홀로 그들과 친할 것이라고 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답: 예, 34 그들이 쇠패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귀홀로 그들과 친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박해로 쇠패할 때에 지혜와 용기의 사람들을 보내어 도움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지요. 도움을 준 사람들은 바로 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귀홀로 그들과 친할 것”이라고 했는데, 문맥상으로 “그들”이란 “진리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홀로 진리의 백성과 친할하려 했다면, 진리를 버리고 교권에 복종하게 하려고 감언이설로 접근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거꾸러져도 도우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들만이 득실 거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러면 35절의 쇠패하는 몇 사람도 개혁자들 중에 일어난 일인지요?

답: 그렇지요.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고 했는데, 진리의 백성들 중 몇 사람 곧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여 죽고 투옥되는 일을 “쇠패하여”라고 표현했지요. 진리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더욱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오는 경험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 23:10).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정결케 되며,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역사의 종말에 남은 자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곧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새 번역들은 이 말씀을 쉽게 번역했는데요,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떤 사

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공동번역).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현대인의 성경)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11절의 다섯째 인을 뿔 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흰옷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의 33~35절과 같은 시기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되었으며, 그 진리의 후예들이 남은 자손을 이룰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선구적 개혁자들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였으나 마침내 그것은 마르틴 루터에게 개혁의 횃불을 전하였고, 요원의 불길처럼 개혁이 번져갔으나, 개혁자들 자체 내의 분열과 교리 논쟁으로 침체되었는데, 그런 틈을 타고 로마교는 반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개혁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사데 교회의 형편과 일치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개혁의 후예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계 12:17)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4. 아주 자세히 예언되었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언제 일어나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답: 예언은 구원의 복음이 역사적으로 전파될 때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 지를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예언으로 암시해주셨지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언의 지도를 받아야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역사적 시점에서 예언이 지적한 바른 자리에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않는 신앙은 파산하게 되지요.(딤후1:18,19) 그래서 저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열심히 이 쉽지 않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강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셔서 바른 위치에서 바른 신앙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라디오로 한 번 듣고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강론 CD를 신청하여 계속 들으시기 바라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뜸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있었지요. 우리는 전화오기를 기다리는데요.) 부디 많은 분들이 CD 신청하시고 구해서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언제 일어나며 그들이 누구지는 다음에 이야기할 때가 되면 자세히 말하지요. 예언에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이지요.

5.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듣기로 하지요. 이제는 다니엘 11:36절부터 말씀하실 차례군요.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까?

답: 다니엘 11:36~39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35절부터 연속되는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이기 보다는 21절 이하 35절까지 예언된 세력을 총괄적으로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이야기 합시다.

[단11:36~39]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

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38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감사합니다. 36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이 왕은 북방 왕으로 상징된 교권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25절, 8장 11절, 12절, 24절, 25절, 11장 14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교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교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앞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라는 말씀은 36절 내용 중의 강조점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했는데, 열조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든 신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세력의 당연한 태도이지요. 여기 “신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엘로힘”인데 성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쓴 말입니다. 또 이방 신들에게도 쓰였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권의 교만과 관련되어 쓰였으므로 열조의 신들 곧 엘로힘은 성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의 모습을 역력하게 묘사했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예언을 영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6.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답: 교권로마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독신주의를 강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을 통하여 보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창 3:15, 갈 4:4).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열망했다고 전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언 상으로 교회지요. 다니엘서에는 “여자”라는 말이 두 번만 나옵니다. 11장 17절에 “여자의 딸을 주어”와 이곳의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7절은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클레오파트라) 다른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37절의 여자는 교권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실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가 사모하는 것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선언한 대로 여자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교권로마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므로 교회의 참 사모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지요.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는 모든 신보가 크다는 주장에 대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7. 38절에는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고 했는데요, 교권로마가 세력의 신을 공경했나요? 세력의 신

이 무엇입니까?

답: 여기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라고 했지요. 북방 왕으로 표상된 교권로마는 진리의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는 예언인데, 영어로는 Fortresses로 번역되어 요새의 신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요새의 신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네요. 모두가 확실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내용들입니다. 이 말의 원어는 “엘로아 마우짐()”인데, “마우짐”은 7, 10, 19, 31절에도 나타나는데 “성, 산성, 견고한 성, 견고한 곳”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결국 “마우짐”은 피난처, 요새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로아 마우짐”은 “피난처의 신”, “요새의 신”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33~39절의 상황에서 어떤 학자들은 교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해 군사를 사용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Maxwell, God Cares, I, 268) 그러나 이 예언적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교권로마의 거짓됨을 지적하고, 그것의 그런 정체를 알려서 사람들로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피난처의 신은 거짓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까지 속고 있는 사단의 기만 속에, 그 세력은 철저히 거짓의 신인 사단(요 8:44)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사28:15을 읽어보실래요.

[사28:15]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참으로 교권로마는 철저히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숨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는 말씀을 실감나게 합니다.

8. 그러니까 다음 구절은 38절의 세력의 신이 그들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이라는 뜻을 계속하여 지적해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답: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열조는 37절에도 나온 말인데 신앙의 선조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종교는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까. 교권로마는 스스로 그리스도교의 정통성이 자기교회에 있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교권로마의 권세는 교황에 집약되고 요새의 신에 의지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선조들이 섬긴 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그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보물을 드려 섬기는 것이 되지요.

9. 그러면 요새의 신, 곧 거짓의 신과 열조의 알지 못하던 신은 같은 신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신입니까?

답: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금,

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교권로마교도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제시되었고, 특히 동정녀 마리아는 그의 순결성과 모성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신도들의 숭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Maxwell, God Cares. I, 286 참고) 정말 신앙의 선조들이 알지 못하던 신입니다. 이뿐 아니라 39절이 말한 대로 또 열조의 알지 못하던 신은 이방신이기도 합니다. 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교권로마가 이방 신을 힘입은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것은 미트라교의 신인 태양신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태양신 생일 축제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분명히 “존경할 태양의 날”(기독교 대백과 사전 14권, 119)로 선포된 일요일을 그리스도교의 예배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모든 그리스도교를 로마교에 예속시키는 표가 되었지요. 정말로 “크게 견고한 산성들”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공언합니다. “신교가 생기기 일천 년 전에 이미 우리 천주교회는 신성한 사명으로 말미암는 권능으로서 그 날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식일(일요일)은 신교파로부터도 아무 반대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날은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나온 천주교회의 아들이다”(1898년 9월 23일자 천주교의 거울). 뿐만 아니라 미트라교와 관계된 일요일 휴업령을 교회가 수용하므로 마침내 로마를 얻었으니 이 또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 어떻게 로마가 태양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교권로마에 전수되었지요?

답: 로마 제국은 루시우스 아우렐리아누스(Aurelianus Lucius, 재위 270~275) 황제가 즉위할 무렵에 외국의 침입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아우렐리아누스에 의하여 중흥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우렐리아누스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여왕 제노비아는 그가 섬기는 태양신을 의지하여 로마를 격파하려고 생각하고,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인 에메사를 전쟁터로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노비아는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태양신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고 로마에 승리를 가져다주었다”고 선전하면서 황제 자신이 태양신을 신봉하고 그것을 로마 국가의 신으로 받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지상에서의 태양의 대표자”라는 사상이 신 피타고라스파 철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고, 이 사상의 뒷받침으로 태양신 숭배는 황제의 권력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종교적 이념이 되었습니다.(대세계의 역사 3권 205 참고) 그래서 태양신교 곧 미트라교는 로마 제국의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고, 일요일은 태양의 날로 존귀히 여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 다음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인데, 그는 기독교를 303~313년까지 10 년간(계 2:10) 극심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광활한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하여 네 사람이 나누어 통치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황제가 퇴위하게 되었을 때 정권을 독점하려는 욕망으로 인하여 내란이 일어났지요. 콘스탄티누스가 312년 갈리아에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어느 날 석양에, 빛에 싸인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대여 이것으로써 이겨라”라는 글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군대의 군기와 방패에는 태양에 십자가를 그린 문양이 새겨졌으며, 그는 승리하였고 313년에는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자유화하였습니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는 321년 3월 7일에 “존경할 태양 예배일에 휴업”을 명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태양

신교와 기독교를 기술적으로 연합하고, 또한 자신이 침례를 받음으로, 로마를 소위 기독교국이 되게 하는 문을 열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요새의 신**을 의지한 교권로마가 제국로마를 차지하는 길을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과연 교권로마는 “이방신을 힘입어 견고한 산성을 취하”였습니다. 39절 마지막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니라**. 교권로마 전성시대 동안 출세하려면 교황에게 잘 보여야 하였으며 유럽 각국 왕위가 교황에 의하여 좌우되었던 사실을 잘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교권로마는 이방신,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을 의지하여 견고한 산성을 취하였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세상을 성경진리가 아닌 그들 교권교리를 따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예언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올바른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1.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세한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애청자들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시대에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성경적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